

ISSN 2734-0317

www.kita.net

KITA

통상 리포트

2024

VOL.09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강금윤 수석연구원

오지인 인턴연구원

KITA 통상리포트 2024 VOL.09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발행인 윤진식

편집인 조상현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발행일 2024년 9월 3일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Contents

요약

01. 한-UAE CEPA 협상 경과	1
02. 한-UAE 교역 현황	2
03. 한-UAE CEPA 주요 내용	9
04.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20
0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22

강금윤 수석연구원 (02-6000-5620, gy.kang@kita.or.kr)

오지인 인턴연구원

※ 본 리포트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한국이 아랍권 국가와는 최초이자 중동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인 '한국-UAE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2024년 5월 정식 서명되었다. 우리의 14대 교역국이자 3대 원유 수입국인 UAE와의 CEP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UAE CEPA의 상품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 수 기준 한국 92.3%, UAE 91.2%로서 지난해 12월 협상을 끝낸 한국-GCC FTA(한 89.9%, GCC 76.4%)의 개방 수준보다 높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발효 후 10년에 걸쳐 한국은 72.3%, UAE는 82.0%를 개방한다.

UAE는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특히 '23년 기준 대UAE 수출액 중 6.5%를 차지하는 기타 차량용 부품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우리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직·간접적 손해가 예상된다. 건설 현장 등에 주로 사용되는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즉시 또는 최대 10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져 5천억 달러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UAE로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EV) 관세는 10년 내 철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현재 활발히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UAE의 전기차 시장에서 향후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품목에 대해서도 최장 10년간 관세가 철폐된다. 올 상반기 對UAE 화장품 수출액은 7,451만 달러를 기록하며 9대 수출품목이 되었으며, 수출액은 '13년 824만 달러 (81위)에서 '23년 8,971만 달러(12위)로 연평균 27% 증가했다. 입술·눈화장용 제품류, 매니큐어 등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고, 기타 메이크업 제품류에 대한 관세는 5년~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의료기기는 과반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의료기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UAE 시장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와 나프타에 대한 관세도 인하·철폐된다. 한국은 UAE산 원유에 대한 기존 3% 관세를 10년에 걸쳐 균등 철폐하기로 했으며, 나프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로 기존 0.5% 관세를 5년에 걸쳐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게 된다. 올 상반기 對UAE 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와 나프타에 대한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 업체의 손해가 예상된다. 다만 수입시장을 개방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도 비준동의안 제출을 앞두고 영향평가에 착수했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대추야자에 대한 30%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식물성 기름, 초콜릿 및 과자류, 홍차 등에 대한 5%~40% 관세가 최장 5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다.

CEPA를 활용해 UAE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세인하 외에 원산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으로서 역외산 재료 활용이 많은 석유화학제품 등 공산품은 완화된 원산지 인정기준(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육류, 낙농품 등 농축수산물물은 국내 관련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엄격한 원산지기준(완전생산기준)을 적용했다.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40%)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지만, 부속서 규정에 따라 완전생산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등을 따르는 품목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수입통관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청 및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여 통관 절차를 간소화했다.

최근 3년간 對UAE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한-UAE CEPA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35.4%)이 잘 알고 있다는 응답(12.3%)보다 약 3배가량 많았다.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52.3%로 나타나는 등 아직 전반적으로 CEPA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수출기업이 한-UAE CEPA의 최우선 과제로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을 꼽았으며, 홍보 방안으로 설명회 개최(65.2%,복수응답), 교육자료 등 책자 발간(40.1%), 개별 안내(32.8%) 등을 꼽았다. 응답기업 중 절반 가량이 한-UAE CEPA를 활용하여 UAE향(向) 수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43.7%,복수응답), UAE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등 신규 시장에 진출하거나 현지 신규 유망 수출품목 발굴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40.1%로 나왔다. 우리 수출기업은 UAE 현지 시장 정보를 가장 궁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5.6%,복수응답), CEPA 협정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49.7%) 및 원산지확인·컨설팅 등 활용 방안 지원(45.0%)에 대한 수요도 파악되었다.

UAE는 한류의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지는 국가이자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수출시장이다. UAE의 1인당 GDP는 5만 1,909달러('23년)로 한국(3만 3,192달러)의 약 1.6배 수준이며 최근에는 한류 확산과 더불어 K-뷰티 및 K-게임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남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도 UAE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UAE는 세계 상위 5위 재수출 국가이자 전체 무역액 중 재수출 비중은 27.5%에 이르는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올해로 수교 44주년을 맞은 UAE와의 협력 관계가 한-UAE CEPA 체결로 더욱 개선되고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잔여 비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1 한-UAE CEPA 협상 경과

□ 한국과 UAE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은 협상타결('23.10.14.)과 공식서명('24.5.29.)을 마쳤으며, 정부는 연내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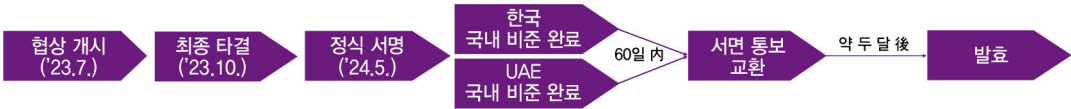
〈표1. 한-UAE CEPA 협상 경과〉

일자	내 용
2021.4.	한-UAE CEPA 협상 개시 제안
2021.10.14.	CEPA 추진 공동 선언문 발표 (양국 통상장관)
2023.7.7.	CEPA 협상 본격 추진에 합의 (양국 통상장관)
2023.9.18.-21.	제1차 공식협상(두바이)
2023.10.2.-5.	제2차 공식협상(서울)
2023.10.14.	협상 최종 타결 선언
2024.5.29.	한-UAE CEPA 공식서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UAE 정부가 CEPA 협상 개시를 먼저 제안했으며('21.4월), 같은 해 9월 발표한 건국 50주년 기념 전략 프로젝트(Projects of 50)에서 한국을 비롯한 8개의 주요 시장과 CEPA 체결 계획¹⁾
 - 당시 한-GCC* FTA가 10년 이상 교착상태('07년에 협상이 개시된 이후 GCC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10년 1월 협상 중단 선언)인 점을 감안하여 한-UAE CEPA를 개별적으로 추진²⁾
-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이 결성한 지역 협력 기구
- '23년 1월 우리 대통령의 UAE 순방 및 8월 한-UAE 통상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하반기부터 협상이 본격 추진됐고, 두 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친 끝에 최종 타결
- 최종 타결 후 약 7개월 만인 '24.5월 공식 서명됐으며, 한-UAE CEPA는 국회 심의·의결 등 양국의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발효 예정

〈그림1. 한-UAE CEPA 추진 경과 및 잔여 일정〉



자료: 저자 정리

1)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2023.2.23.), "First set of 'Projects of the 50'",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https://u.ae/en/about-the-uae/uae-in-the-future/projects-of-the-50/first-set-of-projects-of-the-50>(검색일: 2024.7.5.).
2)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4.), "(참고자료)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2 한-UAE 교역 현황

1. UAE의 경제 및 무역

□ [경제] '23년 기준 UAE의 GDP는 5,042억 달러로 세계 30위권이며, 경제성장률은 3.4%를 기록

- UAE는 GCC 회원국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이며, 1인당 GDP는 5만 1,909달러('23년)로 한국(3만 3,192달러)의 약 1.6배 수준

〈표2. GCC 회원국 경제 현황〉

(단위: 억 달러, (한국의 투자) 만 달러, 만 명, %)

국가	GDP	GDP 성장률	인구	對세계 수출(A)	對세계 수입(B)	교역 (A+B)	한국의 투자
사우디아라비아	10,676	-0.8	3,282	4,112	1,899	6,011	11,236
UAE	5,042	3.4	971	5,156	4,205	9,361	2,075
카타르	2,342	1.6	298	1,310	335	1,645	260
쿠웨이트	1,618	-2.2	496	998	359	1,357	193
오만	1,091	1.3	505	661	386	1,047	160
바레인	447	2.6	158	223	155	378	0.5

자료: IMF, ITC Trademap, 한국수출입은행

주1: (GDP(성장률), 인구) 2023년 기준, (교역 및 투자) 2022년 기준

주2: 통계 기관별 일부 추정치 포함 가능

- UAE의 전체 GDP에서 비석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수준이며³⁾, 최근 정부의 산업 다각화 노력으로 비석유부문* 산업이 견고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⁴⁾

* '23.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숙박 및 음식 서비스(16.1%), 운송 및 보관(12.0%), 건설(1.1%) 등

– UAE 의 GDP 성장률은 '21년 4.4%, '22년 7.5%, '23년 3.6%를 기록했으며, 특히 '22년에는 유가 상승, 카타르 월드컵 및 포스트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 확대, 정부의 투자·이민 정책 확대에 힘입은 부동산 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고성장을 이뤘음⁵⁾

– '24년에는 이민 유입의 안정화, 주요 무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 '22년 및 '23년의 호조로 인한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비석유부문의 GDP 성장이 다소 정체될 수 있으나 금리 인하로 인한 투자 자본 유입 등 상방 변수도 존재⁶⁾

3) UAE Ministry Of Finance, "UAE Economy Overview", UAE Ministry of Finance, <https://mof.gov.ae/ldmo-uae-economy-overview/> (검색일: 2024.7.5.).

4) OPEC(2024.5.14.), "Monthly Oil Market Report", OPEC.

5) Central Bank of the UAE(2024.6.13.), "2023 Annual Report", Central Bank of the UAE.

6) Ibid

- 향후 UAE의 GDP 성장률은 '29년까지 4%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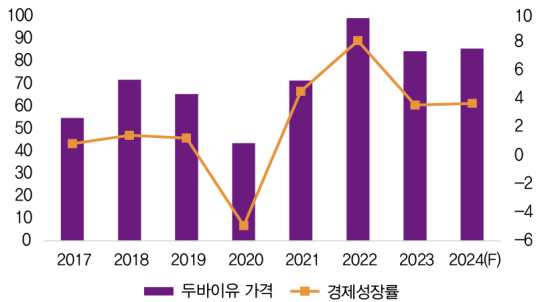
* 성장률 전망치: '25년(4.17%), '26년(4.27%), '27년(4.36%), '28년(4.46%), '29년(4.54%) (자료: IMF)

- UAE의 경제성장은 석유 생산량 및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24년 석유 생산량은 같은 해 6월 OPEC+ 회의에서 발표된 생산 계획에 따라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25년에는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석유부문 실질 GDP가 8.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⁷⁾
- 다만 석유 생산량과 관련된 전망은 지정학적 이유(홍해 분쟁, 가자지구 및 러-우전쟁), 금리인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OPEC+의 산유량 합의 변경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존재

〈그림2. UAE 경제성장률과 국제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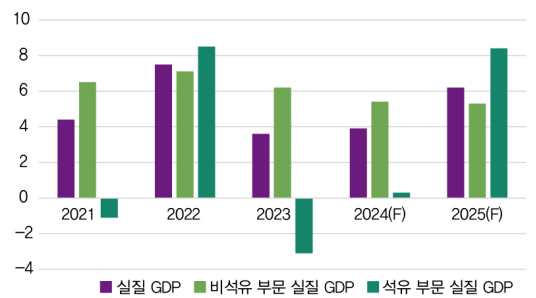
(단위: \$/Bbl, %)



자료: IMF WEO(2024년 4월), Petronet

〈그림3. UAE 부문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자료: Central Bank of UAE, Annual Report 2023

- [무역] UAE는 주요 교역국과 CEPA 체결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대외무역도 지속 성장할 전망⁸⁾

- 인도와 첫 번째 CEPA 협정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총 6개국과 CEPA 협정을 발효시켰으며, 이후 여러 국가와 적극적으로 CEPA 협상을 추진

〈표3. UAE의 CEPA 진행 현황 ('24.7월 기준)〉

발효		타결		협상 중	
국가	발효일	국가	타결일	국가	개시일
인도	'22.5.1.	한국	'23.10.14.	베트남	'23.4.6.
이스라엘	'23.4.1.	콜롬비아	'23.12.2.	말레이시아	'23.5.23.
인도네시아	'23.9.1.	모리셔스	'23.12.22.	필리핀	'23.12.3.
튀르키예	'23.9.1.	콩고	'23.12.28.	호주	'23.12.12.
캄보디아	'24.1.31.	케냐	'24.2.23.	뉴질랜드	'24.5.6.
조지아	'24.6.27.	칠레	'24.4.25.		
		우크라이나	'24.4.29.		

자료: UAE경제부 및 언론 보도

7) Central Bank of the UAE(2024.6.13.), "2023 Annual Report", Central Bank of the UAE.

8) Hazem Hussein, Khoder Nashar(2024.2.18.), "Forward-looking vision of wise leadership reflected in UAE's non-oil foreign trade: Al Zeyoudi", WAM.

- 최근 5년('19~'23년)간 UAE의 전체 무역규모는 연평균 12.5%씩 성장했으며,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13.8% 수준
 - UAE는 '23년에 4,878억 달러를 수출하고 4,487억 달러를 수입하며 약 39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
 - 원유 및 석유제품이 UAE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인 반면 수입품목은 금·다이아몬드(13.5%), 무선통신기기(8.9%), 자동차(6.1%), 컴퓨터(2.8%)등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구성('23년 기준)

〈표4. UAE의 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19~'23년)
무역	5,840	5,823	7,727	9,361	9,365	12.5%
수출	3,160	3,353	4,252	5,156	4,878	11.5%
수입	2,680	2,470	3,475	4,205	4,487	13.8%
수지	480	883	777	951	391	-5.0%

자료: ITC Trademap('19~'22), WTO Stats('23년, 추정치)

〈표5. 2023년 UAE의 주요 對세계 수입 품목〉

(단위: 억 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명	금액	비중
전체			2,629	100.0%
1	7108	금	239	9.1%
2	8517	무선통신기기	233	8.9%
3	8703	자동차	161	6.1%
4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143	5.4%
5	7102	다이아몬드	16	4.4%
6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93	3.5%
7	9999	기타 분류되지 않는 상품	86	3.3%
8	8471	컴퓨터	74	2.8%
9	8708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39	1.5%
10	8411	터보제트 및 가스터빈	36	1.4%

자료: ITC Trademap

주: 수입상대국이 보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통계이므로 타사 통계와 일부 차이 발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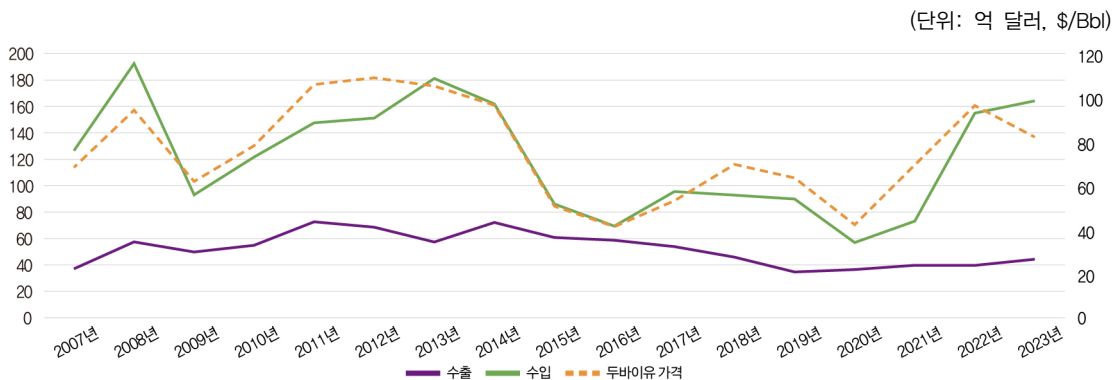
2. 한-UAE 교역 현황

가. 교역 규모

□ UAE는 한국의 14대 교역국으로서 '23년 기준 對UAE 수출은 44억 달러, 수입은 164억 달러를 기록하여 교역 규모는 총 209억 달러 수준

-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381억) 다음으로 많은 교역을 했으며, UAE에 이어 카타르(\$158억), 쿠웨이트(\$102억) 순
- (수출) 한국의 對UAE 수출은 '11년 73억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35억 달러('19년)까지 감소했으며, 이후 '23년까지 연평균 6.3% 증가
- (수입) UAE로부터의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UAE 교역 특성상 UAE 수입 규모는 국제원유가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
 - 對UAE 수입액은 '20년 57억 달러에서 '22년 155억 달러로 172%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국제원유 가격은 43\$/Bbl에서 99\$/Bbl로 129% 증가하는 등 유사한 추이를 보임
 - '24년 국제유가는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교차하면서 전년과 유사하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⁹⁾ 對UAE 수입규모도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수지)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UAE와의 교역에서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는 구조
 - 유가 상승으로 인해 '23년 대UAE 무역 적자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120억 달러를 기록

〈그림4. 한-UAE 교역 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Petronet

9) 김태환, 정준환, 우민지(2024.1.), “2024년 국제 원유 시황과 유가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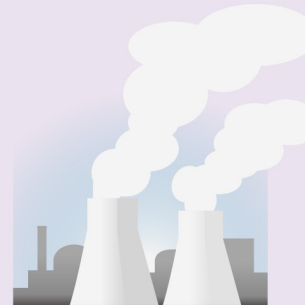
나. 수출입 현황

- [수출] '24년 상반기 기준 對UAE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15.8%), 윤활유(4.4%), 우라늄(6.3%)등이 있으며 최근 화장품 수출이 증가 추세
 - (자동차) 한국의 對UAE 자동차 수출은 주로 전통적인 디젤/휘발유 자동차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
 - － '24년 상반기 기준 對UAE 수출시장에서 승용차(\$2.1억)와 자동차부품(\$2.0억)이 각각 1, 2대 수출 품목을 차지한 반면 전기차 수출액은 358만 달러에 머물며 수출품목 89위를 기록
 - (우라늄) 한국이 UAE 현지에 건설한 바라카 원전이 '21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연료인 우라늄 수출이 증가
 - － 우라늄은 '23년 기준 우리의 對UAE 3대 수출 품목이며 수출액은 전년대비 371% 증가한 약 3억 달러를 기록
 - * 약 1년 반 주기로 교체가 필요한 원전 연료는 원자로 형태마다 다르게 제작되어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UAE는 자체적인 원전 연료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¹⁰⁾

〈참고1.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인 한국이 처음 수주한 해외 원전 프로젝트로서 한·UAE간 장기적인 상호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 계기로 평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수주일: 2009년 12월 27일
- 수주규모: (금액) 약 200억\$, (용량) 560만kW**
 - *운영, 연료 공급, 폐기물 처리 등 포함 시 총 400억\$ 규모
 - **140만kW급 4기
- 상업운전일정: 1호기('21.4.), 2호기('22.3.), 3호기('23.2.), 4호기('24.3.)



- (화장품)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한국산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며 '24년 상반기 수출품목 9위를 기록
 - － 화장품 수출액은 '13년 824만 달러(81위)에서 연평균 27%씩 증가해 '23년에는 8,972만 달러(12위)에 달했으며,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 UAE는 한류 실태를 조사한 26개국 중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인식 변화 1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2위로 한류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두드러지는 국가이며,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향후 뷰티 등 한국 콘텐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¹¹⁾

10) 차대운 (2024.6.2.), "UAE에 원전 수출했더니 연료 우라늄 수출도 '쑥'... 작년 4천억원", 연합뉴스.

11)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4.4.2.),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무선전화기) 과거 대기업 수출제품 중 하나로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던 무선전화기는 해외 생산 증가, 경쟁 심화, 신규 소비자 증가 정체 등의 영향으로 수출액과 수출품목 순위 모두 감소세
 - '13년 수출액 5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대 수출품목에 올랐으나 '23년 6,455만 달러를 수출하여 14위로 하락
 - 중국과 미국의 對UAE 무선전화기 수출은 같은 기간 각각 304%(中, \$15억→\$61억), 76%(美, \$14억→\$24억)씩 증가¹²⁾

□ [수입] 對UAE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66.1%), 나프타(23.9%), 중유(5.4%)등 원유 및 석유제품 위주 ('24년 상반기 기준)

- UAE는 한국의 3대 원유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는 '23년 전체 원유 수입액(\$862억) 중 11%를 UAE로부터 수입
 - * '23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35%), 미국(14%), UAE(11%), 쿠웨이트(10%), 이라크(9%) 순임 (자료: K-Stat)
- 제조업이 약한 UAE 경제 특성상 우리의 대UAE 상위 9대 수입품목이 모두 원유, 천연자원, 광물로 구성
 - '24년 상반기 수입액 중 원유가 66.1%, 석유제품(나프타·중유·LPG)이 29.6%, 금속광물(알루미늄괴 등)이 2.9%의 비중을 차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제재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 석유화학사들이 러시아 대신 UAE, 인도, 카타르 등에서 나프타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추세¹³⁾
 - * 나프타 수입 비중: UAE(24.3%), 알제리(12.3%), 카타르(10.7%), 쿠웨이트(10.0%), 오만(7.9%), 그리스(7.3%), 인도(6.5%) 등 ('24.6. 기준, K-Stat)

〈표6. 한국의 對UAE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품목	2023	2024년 상반기		품목	2023	2024년 상반기	
	금액	금액	비중		금액	금액	비중
승용차	393	214	8.1	원유	9,800	6,618	66.1
자동차부품	351	202	7.7	나프타	5,137	2,386	23.8
우라늄	305	167	6.3	중유	165	541	5.4
주화	22	126	4.8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235	133	1.3
윤활유	176	115	4.4	천연가스	466	87	0.9
합성수지	157	83	3.1	동광	103	69	0.7
연초류	189	82	3.1	동괴 및 스크랩	118	56	0.6
공기조절기	102	82	3.1	LPG	17	32	0.3
화장품	90	75	2.8	기타금속광물	79	30	0.3
전체	4,432	2,638	100.0	전체	16,423	10,0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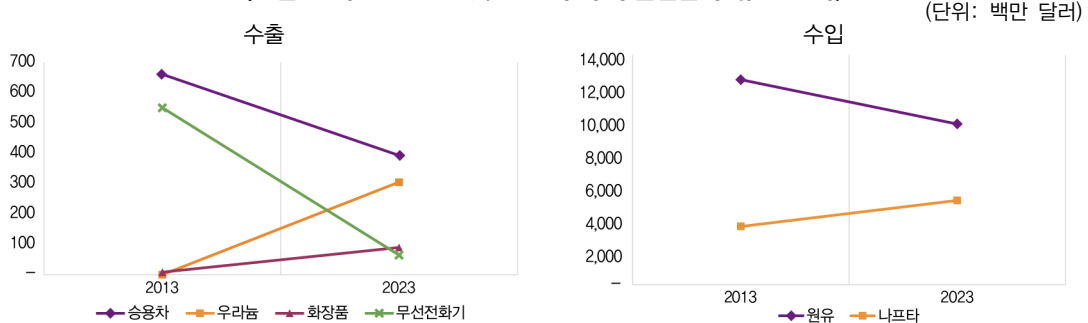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주: MTI 4단위 기준, 순위는 2024년 상반기 기준

12) K-Stat, HS 코드 8517 기준

13) 김기훈(2022.11.29.), “대러제재에 러시아産 나프타 수입 뚫…UAE·인도로 공급 다변화”, 연합뉴스.

〈그림5. 최근 10년간 對UAE 주력 수출입품목 규모 변화〉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점유율] 한국의 UAE 수입시장 점유율은 '17년 3.1%에서 '22년 1.3%로 감소 추세

- UAE의 對한국 수입액이 80억 달러('17년)에서 43억 달러('22년)로 약 46% 감소하며 한국의 UAE 수입시장 점유 순위는 7위('17년)에서 18위('22년)로 하락
 - 다만 최근('23년, '24년 상반기) 한국의 對UAE 수출이 전년 동기비 11~12%씩 증가한 만큼 UAE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반면 중국은 UAE의 최대 수입 상대국으로서 '22년 기준 20.3%의 점유율을 기록
 - '18~'22년 UAE의 대중국 수입액은 연평균 15.3%씩 증가했으며('18년 380억\$→'22년 672억\$), 같은 기간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도 '18년 15.5%에서 지속 확대됐는데, 이는 UAE의 주요 수입국인 인도,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가 같은 기간 1.2~2.0%p만큼 점유율이 감소한 것과 대비
 - 중국의 대UAE 주요 수출품은 무선통신기기, 하드디스크(HDD)·램(RAM)·롬(Rom), 승용자동차 등이 있으며 특히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최근 10년('13~'23년)간 수출액이 약 4배 이상 증가(\$15억→\$61억)¹⁴⁾

〈표7. UAE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 추이〉

순위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	중국	18.7%	15.5%	16.4%	18.4%	19.2%	20.3%
2	인도	7.9%	9.4%	10.7%	7.7%	7.7%	8.2%
3	미국	9.0%	8.5%	8.0%	7.7%	6.3%	6.5%
4	일본	5.4%	5.6%	5.1%	4.4%	4.0%	3.6%
5	튀르키예	3.0%	1.4%	1.4%	1.4%	3.5%	2.9%
	⋮						
18	한국	3.1%	2.3%	1.5%	1.9%	1.3%	1.3%

자료: UAE통계청('17~'20년), ITC Trademap('21~'22)¹⁵⁾

주: 순위는 2022년 기준

14) 한국무역협회(K-Stat)

15) UAE통계청 자료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총 수입액(World)'에서 '지역미상(Areas Nes)'을 차감한 금액을 분모로 하여 점유율 계산

3 한-UAE CEPA 주요 내용

1. 개요

□ 한-UAE CEPA는 한국이 아랍권 국가와는 최초이자 중동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

- UAE는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동 지역 핵심 우방으로서 중동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우리의 시장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중동 지역에서 한국이 튀르키예 및 이스라엘과 체결한 FTA는 각각 '13.5월, '22.12월 발효됐으며 GCC와 추진한 FTA는 '23.12 협상 타결되어 연내에 정식 서명을 준비 중

□ 한-UAE CEPA 발효 후 10년 동안 한국은 72.3%, UAE는 82.0%에 대해 관세를 철폐 (수입액 기준, '22년)¹⁶⁾*

* 품목 수 기준 한국 92.3%, UAE 91.2%에 해당 (관세 인하 제외)

- 특히 ▲자동차 및 부품, ▲냉장고 및 부품, ▲에어컨 및 부품 등 GCC측 양허에 포함 되지 않은 품목이 UAE측 CEPA 양허에 포함되며 개방 폭이 커짐¹⁷⁾

〈참고2. 한국의 중동 지역 무역협정 현황('24.7월 기준)〉



- 아랍국가
 - 한-UAE CEPA ('24.5.29. 공식서명)
 - 한-GCC FTA ('23.12.28. 협상타결)
- 비(非)아랍국가
 - 한-이스라엘 FTA ('22.12.1. 발효)
 - 한-튀르키예 FTA ('13.5.1. 발효)
 - 한-이집트 FTA ('22.1.20. 공동연구MOU)

16) 산업통상자원부(2024.5.29.), “(참고자료)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 경제협력력을 시작으로 ‘신 중동 불’ 성큼 다가온다”, 산업통상자원부.

17) 산업통상자원부(2023.10.14.), “(참고자료)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2. 상품 양허

□ [UAE]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제품, 의료기기, 화장품, 농·축·수산물 등 품목 수 기준 91.2%에 대해 관세 철폐

-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비중은 37.4%, 10년 내 철폐되는 품목은 총 79.9%이며, 나프타는 유일한 관세 인하 품목으로 기준세율의 50%를 5년간 균등 인하

〈표8. 한-UAE CEPA 상품 양허 비교 (UAE측)〉

(단위: 개, 비중 %)

양허유형	UAE 양허 (對UAE 수출 관련)	
	품목 수 기준	주요 품목
기준세율 0%	888 (11.3)	-
즉시 철폐	2,942 (37.4)	의료기기, 화약 및 무기류, 주요 자동차부품(새시, 차체 등), 직물, 화장품, 귀금속,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 등
5년 철폐	953 (12.1)	항공기용 엔진, 압연기용 롤, 기계류(드릴링머신 등), 폴리에스테르섬유 등
10년 철폐	2,385 (30.4)	승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 제트유,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항공·철도차량부품, 전복, 고등어 등
관세 인하	4 (0.1)	나프타 (5년간 5%→2.5%)
수혜품목 합계	6,284 (80.0)	-
금지·특별관심품목	138 (1.8)	담배, 마약류, 산동물(돼지),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 주류 및 주류포함식품 등
기준세율 유지	546 (7.0)	기유(基油), 철강제품 등
전체 합계	7,856 (10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FTA 협정문 및 보도자료) 바탕으로 저자 계

- UAE측에서 금지품목(Prohibited, PH)과 특별관심품목(Special Goods, SG)으로 지정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총 138개로 전체의 1.8%

— UAE를 포함한 GCC 국가들은 GCC 공통 관세법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제한하고 있으며¹⁸⁾, 한-UAE CEPA에서는 담배, 마약류, 돼지고기, 주류 등이 PH 및 SG 품목으로 지정되어 협정에서 제외

18)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Customs clearance",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finance-and-investment/clearing-the-customs-and-paying-customs-duty>. (검색일: 2024.7.15.)

〈표9. UAE측 금지·특별관심 품목〉

구분	내용
금지품목(PH)	씹는담배, 산동물, 상아, 마약류, 석면제품, 페타이어 등
특별관심품목(SG)	전자 및 제조담배,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 주류 및 주류포함식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농축수산물) 기존 무세품목(쌀, 사과·배, 새우, 게 등)외에 쇠고기·닭고기·라면·조미김 등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식품 교역 활성화 기대
- (자동차·자동차부품) UAE측이 체결한 CEPA 중 최초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개방¹⁹⁾
 - － (부품) '23년 기준 대UAE 수출액 중 6.5%를 차지하는 기타 차량용 부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직·간접적인 수혜 예상
 - － (화물차) 건설 현장 등에 주로 사용되는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즉시 또는 최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22년 기준 약 5천억 달러 규모 이상²⁰⁾인 UAE 프로젝트 시장 진출 활성화 기대
 - － (승용차) 일부 특수 승용자동차(긴급차량, 장애인용 차량 등)를 제외하고 대부분 10년(0.5%씩 균등 인하)에 걸쳐 관세 철폐 예정
 -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EV) 관세는 10년 내 철폐, 불꽃점화식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관세는 즉시 철폐함에 따라 현재 활발하게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UAE의 전기차 시장²¹⁾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표10. 자동차(부품) 및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대상 UAE 양허 현황〉

(단위: 만 달러, %)

HS코드	설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수출액('23)	비중
870899	기타 차량용 부품	5%	즉시 철폐	28,831	6.5
870323	승용자동차(1,500~3,000cc)	5%	즉시~10년 철폐	19,567	4.4
870340 870350	하이브리드차(HEV)	5%	10년 철폐	3,863	0.9
870380	전기자동차(EV)	5%	10년 철폐	652	0.1
870360 87037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5%	(불꽃점화식) 즉시 철폐 (압축점화식) 5년 철폐	388	0.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양허표), K-Stat(한국의 對UAE 수출)

주: 비중은 전체 對UAE 수출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실제 양허는 UAE의 HS 8자리 품목분류체계를 따름

19) 김동규(2024.5.29.), "[일문일답] 통상본부장, 한·UAE CEPA로 자동차·車부품 최대 수혜 예상", 연합뉴스.

20) MEED(2023.7.), "ANALYSIS: UAE Projects H2 2023", M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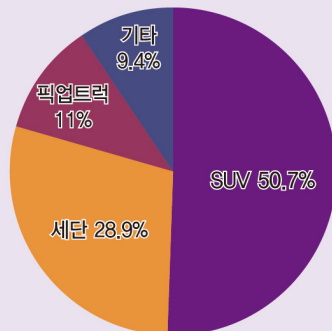
21) ARTHUR D LITTLE(2023.10.), "GLOBAL ELECTRIC MOBILITY READINESS INDEX - GEMRIX 2023", ARTHUR D LITTLE.

〈참고3. UAE의 자동차 시장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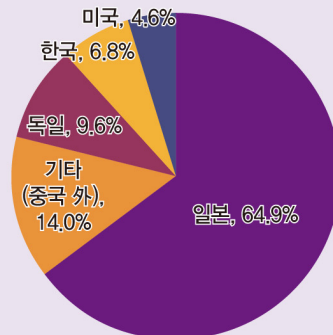
'21년 기준 UAE 자동차시장의 차종별 비중은 SUV(50.7%), 세단(28.9%), 픽업트럭(11%) 순으로, 야외활동과 오프로드 운행에 적합한 차종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다. 국가별로는 일본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64.9%로 가장 크며 뒤이어 독일(9.6%), 한국(6.8%), 미국(4.6%)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UAE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상하이자동차(SAIC)가 인수한 영국의 자동차 브랜드 MG모터는 유럽풍의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여 인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밖에 창안, 지리 등 기타 중국 브랜드들의 점유율도 증가세다.

〈차종별 UAE 자동차시장 점유율('21)〉



〈제조국별 UAE 자동차시장 점유율('21)〉



UAE의 전기차 시장규모는 '24년 2.7억 달러에서 연평균 8.2% 증가하여 '28년에는 9.7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9년 연속 증가하여 '28년 6,624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UAE에서 판매중인 전기차 평균 가격은 5,600달러선이다.

〈UAE 전기차(EV, PHEV) 판매 추이('20~'28)〉



자동차업계는 “자동차 관세는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관세 철폐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비중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조사·수입자·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발효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자료 출처: 통계(Statista), 언론보도, 기업 인터뷰 종합)

- (화장품) 색조(입술·눈) 화장 및 매니큐어 제품류 관세는 즉시 철폐, 기타 기초화장·선스크린 제품류 관세는 최장 10년간 균등 철폐될 예정
 - '23년 기준 對UAE 화장품 수출 97% 이상이 기타 제품류인바, 색조화장품류의 관세 즉시 철폐로 수출 품목 다변화 모색 가능

〈표11. 화장품 대상 UAE 양허 현황〉

(단위: 만 달러, %)

HS코드	설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수출액('23)	비중
330499	기타	5%	5~10년 철폐	8,241	1.9
330410~330491	입술·눈화장용 제품류, 매니큐어 등	5%	즉시 철폐	215	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양허표), K-Stat(한국의 對UAE 수출)

주: 비중은 전체 對UAE 수출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실제 양허는 UAE의 HS 8자리 품목분류체계를 따름

- (의료기기) 과반수 의료기기에 대해 즉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의료기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UAE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가 기대됨
 - '20년 기준 한국은 UAE의 7대 의료기기 수입국으로서²²⁾ 아직 UAE와 CEP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 UAE의 주요 의료기기 수입국으로는 미국(17.6%), 중국(15.8%), 독일(13.1%), 네덜란드(11.4%), 벨기에(5.3%) 등이 있으며²³⁾ UAE는 이들 국가와 CEP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
 - 두바이는 '22년 기준 연간 67만 명의 의료 관광객이 방문하여 2.7억 달러를 지출한 중동 지역 의료 허브로서 두바이 보건청은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 투자 유치를 계획하는 등 관련 산업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됨²⁴⁾

〈표12. 의료기기 대상 UAE 양허 현황〉

(단위: 만 달러, %)

HS코드	설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수출액('23)	비중
9018	내과·외과·치과·수외과용 기기	5%	즉시~5년 철폐 *초음파영상진단기: 10년철폐	4,755	1.1
9021	정형외과용 기기	5%	즉시~5년 철폐	2,415	0.5
9022	방사선 기기	5%	즉시~10년 철폐	1,535	0.3
9019	기계용법용 기기, 치료용 호흡기기 등	5%	즉시~5년 철폐	67	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양허표), K-Stat(한국의 對UAE 수출)

주: 비중은 전체 對UAE 수출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실제 양허는 UAE의 HS 8자리 품목분류체계를 따름

22) 이상훈(2023.2.24.), "급성장하는 UAE 의료기기 시장, 지금이 진출 적기", 약업신문.

23) Ibid

24) Deepthi Nair(2023.4.12.), "Dubai received 674,000 medical tourists who spent \$270m in 2022", The National.

- (전기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및 그 부품에 대해 현 5% 관세가 최장 10년간 균등 철폐 예정

〈표13. 전기전자제품 대상 UAE 양허 현황〉

(단위: 만 달러, %)

HS코드	설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수출액('23)	비중
8415	공기조절기(에어컨)	5%	10년 철폐	7,672	1.7
8418	냉장고·냉동고 등	5%	5~10년 철폐	5,852	1.3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	5%	10년 철폐	2,158	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양허표), K-Stat(한국의 對UAE 수출)

주1: 비중은 전체 對UAE 수출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실제 양허는 UAE의 HS 8자리 품목분류체계를 따름

주2: 수출액에는 '기준세율 유지' 품목이 일부 포함

□ [한국] 한국의 對UAE수입액 중 총 97.6%가 한-UAE CEPA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

- 품목 수 기준 92.3%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수입액 기준 즉시 철폐 품목에 대한 수입 비중은 7.9%, 10년 내 관세 철폐 품목에 대한 수입 비중은 총 70% 수준
 - － 상호주의로 관세 인하를 적용받는 나프타의 수입 비중은 '22년 기준 27.6%에 달하며, 협정 발효 후 기준세율의 50%를 5년간 균등 인하하기로 합의(기준 0.5% →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0.25%)

〈표14. 한-UAE CEPA 상품 양허 (한국측)〉

(단위: 개, 백만 달러, 비중 %)

양허유형	한국 양허 (對UAE 수입 관련)		
	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	주요 품목
기준세율 0%	2,189 (19.2)	360 (2.3)	—
즉시 철폐	6,717 (59.0)	1,221 (7.9)	LNG/LPG,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백시멘트, 카놀라유, 대추야자 등
5년 철폐	1,168 (10.3)	5 (0.0)	빵 및 비스킷, 초콜릿, 과당시럽, 향신료, 데넬리류, 화장품 등
10년 철폐	441 (3.9)	9,617 (62.1)	원유, 벙커C유, 아스팔트, 합성수지, 비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밀가루, 양고기 등
관세 인하	1 (0.0)	4,276 (27.6)	나프타 (5년간 0.5%→0.25%)
수혜품목 합계	8,297 (73.1)	15,119 (97.6)	—
기준세율 유지	876 (7.7)	14 (0.1)	프로세스유, 휘발유, 윤활유, 천연꿀, 골프채 등
전체 합계	11,392 (100.0)	15,493 (10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FTA 협정문 및 보도자료), K-Stat 바탕으로 저자 계

주1: 2022년 HS코드 기준으로 작성된 양허표와 수입 데이터와의 매칭을 위해 2022년 기준으로 수입액 데이터 추출

주2: HS99(품목분류 불가) 등의 품목을 비롯해 매칭이 불가능한 품목은 총 수입액에서 제외하고 비중 계산

○ (원유) 원유에 대한 기존 3% 관세를 10년에 걸쳐 균등 철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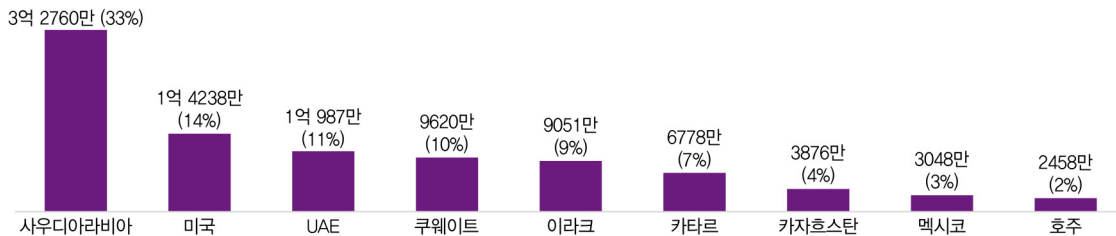
- 주요 원유 수입국인 다른 중동 국가들(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등)보다 먼저 무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 UAE로부터의 원유 수입 증가가 예상됨

* 한-GCC FTA 에서는 수입액 기준 양측의 양허율 균형을 위해 원유를 미양허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원가 부담 완화에 따른 정유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의 수혜가 예상되며, 수입단가 및 제조 단가 하락시 국내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그림6. 국가별 원유 수입 현황 및 추이('23)〉

(단위: 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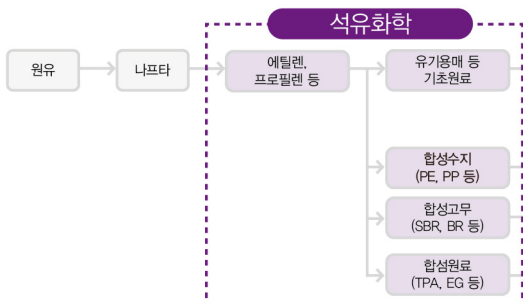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 (석유제품·석유화학) 국내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휘발유, 제트 연료유, 경유, 윤활유, 중유 등 81개 석유제품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합성고무 등 일부 소수 품목만 장기 관세철폐로 개방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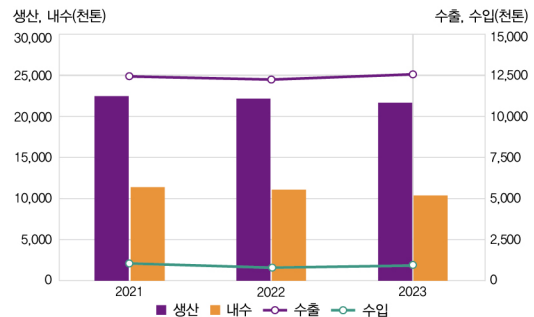
- 석유화학은 자동차, 섬유, 가전, 건설 등 수요산업의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5대 주력 수출품목으로서 정부는 최근 CEPA 비준 동의안 제출을 앞두고 석유화학제품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발생 가능성 등 국내 영향 평가에 착수²⁶⁾

〈그림7. 석유화학산업의 가치사슬〉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KPIA)

〈그림8.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 통계〉 (단위: 천 톤)



자료: e-나라지표

*석유화학제품 3대부문: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25) 산업통상자원부(2023.10.14.), “(참고자료)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26) 박신원(2024.7.7.), “韓·UAE CEPA 속도…국내산업 영향 분석 돌입”, 서울경제.

○ (광물자원) 알루미늄괴에 대한 1~3% 관세를 CEPA 발효 즉시 철폐

- 기존에 무세를 적용받던 구리 및 알루미늄 스크랩 외에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함으로써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확보

〈표15. 광물자원 대상 한국 양허 현황〉

(단위: 만 달러, %)

HS코드	설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수입액('23)	비중
7601	알루미늄의 괴(塊)	1~3%	즉시 철폐	18,002	1.1
7404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즉시 철폐	11,806	0.7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즉시 철폐	5,534	0.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양허표), K-Stat(한국의 對UAE 수입)

주: 비중은 전체 對UAE 수출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실제 양허는 HSK 8자리 품목분류체계를 따름

○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대추야자에 대한 기존 30%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식물성 기름, 초콜릿 및 과자류, 홍차 등에 대한 5%~40%의 관세를 철폐

〈표16.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대상 한국 양허 현황〉

(단위: 만 달러, %)

HS코드	설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수입액('23)	비중
1514	유채유, 거자유와 이들의 분획물	5%	즉시 철폐	4,552	0.3
1806901000 190532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와플과 웨이퍼	8%	5년 철폐	478	0.0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	40%	즉시 철폐	49	0.0
080410	대추야자	30%	즉시 철폐	46	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양허표), K-Stat(한국의 對UAE 수출)

주: 비중은 전체 對UAE 수출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실제 양허는 UAE의 HS 8자리 품목분류체계를 따름

□ [원산지규정] 한국 측 주요 수출품의 특성과 농축수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한 원산지 기준 마련

- 우리 주력 수출품목으로서 역외산 재료 활용이 많은 공산품, 석유화학제품 등은 완화된 원산지 기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육류, 낙농품 등 농축수산물은 국내 관련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엄격한 원산지기준(완전생산기준) 적용

- 공산품의 경우 본선인도가격, 공장도가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업체가 원산지 인정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 가능

* 공장도가격(Ex-Works Price)이 사용된 경우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은 35%로 규정

- 축산물의 경우 산동물을 수입하여 사육기간 없이 바로 생산한 동물 생산품도 해당 국가 원산지로 인정하는 UAE측 기체결 CEPA(인도·이스라엘·인도네시아)보다 더 엄격한 기준 도입

- (판정) 원산지 규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4단위 세번변경 기준(CTH)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본선인도가격(FOB)의 40% 이상)에 따라 원산지 판정
 - 부속서에 따라 완전생산기준 또는 2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 있으므로 유의*
 - * 예: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차량용 부품(제 87류)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등을 따름
농축수산물(제 1~14류)의 경우 대부분 완전생산기준 적용
 - (미소기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최종재를 원산지로 인정

〈표17. '원산지 상품' 기준 및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기준〉

원산지 상품 기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기준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나. 인정가치포함비율(QVC)이 본선인도가격(FOB)의 40% 이상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	
다.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양허표)

- (증명) 양국은 협정 발효 2년 내 원산지 정보 교환에 대한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EODES)*'을 구축하기 위해 작업반을 설치할 예정
 -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 현재까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 구축·운영 (자료: 관세청)
 - 교환시스템 구축 전, 권한 있는 당국이 운영하는 보안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성 검증 가능
- (검증) 수입국은 서면으로 원산지 등에 대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방문검증도 가능
 - 수입국은 서면 검증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방문검증을 수행한 경우 방문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조사 결과와 근거를 통보
- (특혜관세 사후신청 허용) 수입통관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 신청 및 초과납부한 관세의 환급 신청 가능
- (제출증명 생략) 소액물품(\$1,000 이하)의 원산지 증명서는 제출을 면제하여 통관 절차 간소화

3. 기타

□ [서비스] UAE는 한국의 온라인 게임, 의료, 시청각, 건설 분야 등에 대해 개방

- UAE는 그간 체결해온 CEP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으며²⁷⁾ 이를 통해 K-게임, K-의료의 활발한 현지 진출 기대
 - (온라인게임) '24년 UAE의 비디오 게임 시장은 4.2억 달러 규모이며 '27년까지 연평균 5.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시장으로²⁸⁾, 중국 다음으로 한국 게임에 지출액이 큰 국가임²⁹⁾
 - * 한국 게임 월평균 지출 금액: 중국(\$74), UAE(\$63), 미국(\$55) 순이며 전체 조사 대상자 평균 지출액은 \$42 수준
 - (의료서비스) UAE는 중동 국가 중 1인당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로(\$2,352, '21년 기준)³⁰⁾,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는 등 활발한 진출 기대
- 한국과 달리 UAE는 온라인게임, 의료서비스 등의 현지 진출시 면허 승인, 투자지분제한 등의 요건을 두고 있음에 유의

〈표18. 주요 서비스 대상 UAE 양허 현황〉

구분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국경 간 공급(Mode 1)	상업적 주재(Mode 3)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제한 없음	• 외국인 지분은 70%까지로 제한*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서 100% 허용
온라인게임 서비스 등	• 상업적 주재 요구됨 • UAE 당국으로부터 면허 승인 필요	• 외국인 지분은 49%까지 제한 • UAE 당국으로부터 면허 승인 필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UAE CEPA 양허표)

주: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국가에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을 인수해 상업적 법인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

□ [디지털] UAE가 체결한 CEPA 최초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했으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 마련

- 디지털 시장 개방으로 K-콘텐츠의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해지고 현지 시장 진출에 대한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

27) 산업통상자원부(2023.10.14.), “(참고자료)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28) Statista(2024.3.), “Video Games – United Arab Emirates”, Statista.

29) 한국콘텐츠진흥원(2024.1.8.), “2023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30)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2024.4.15.), “Current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current US\$) – Qatar, United Arab Emirates, Bahrain, Oman, Kuwait, Saudi Arabia”, WHO.

- 양국은 핀테크, AI 등 새롭게 부상하는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
 - **(핀테크)** 기업·금융 분야를 위한 핀테크 솔루션의 개발을 증진하고 양국 핀테크 스타트업 인재 협력 장려
 - **(인공지능)** AI 거버넌스 체계의 개발 및 채택, 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과 관련된 규제·정책·이니셔티브에 대해 협력 강화

〈참고4. '제9장. 디지털 무역' 주요 내용〉

- 제9.13조(정보의 국경 간 흐름) 2. 어떠한 당사국도 이 활동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 제9.4조(관세) 1.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의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제9.1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경제협력] 에너지·자원, 스마트 농업, 보건의료, 관광, 디지털 경제, 바이오경제 등 14개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을 도모

- * 에너지 및 자원, 선진산업, 순환경제, 시청각서비스와 공동제작,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보건의료 산업, 관광, 운송, 해운과 해양, 디지털 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 경제협력을 통해 한-UAE CEPA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양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시장 접근성과 개방성 개선을 목적으로 함
 -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협력 활동에 관한 연례작업프로그램을 채택하는 등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한 노력 명시
- (공급망) 공급망 교란시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간의 조정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장하는데 합의
- (에너지 및 자원) 에너지 공급망 전체에 걸쳐 협력을 증진하고(예: 석유 탐사, 정제, 운송 등 전반) 천연가스, 지속 가능한 탄화수소에너지(CCUS 및 수소 포함),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대체 및 재생 에너지원의 개발·이용에 대한 협력 규정

4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 최근 3년간 대UAE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 한-UAE CEPA에 대한 인식 및 대응 현황과 관련한 설문조사 진행

* 설문 기간: 2024.7.24.(수)~2024.7.25.(목) (2일 간)

응답 기업: 대UAE 수출기업 302개사(기계·전기·전자 24.2%, 반도체 13.2%, 석유(화학)8.9%, 자동차(부품) 8.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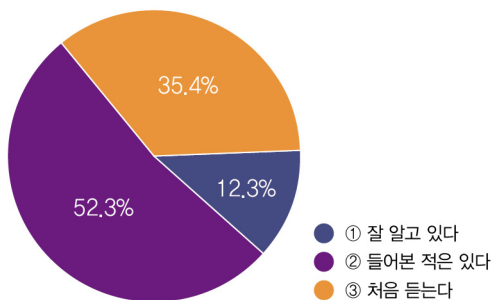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

○ 수출기업 중 한-UAE CEPA를 인지하지 못한 기업은 35.4%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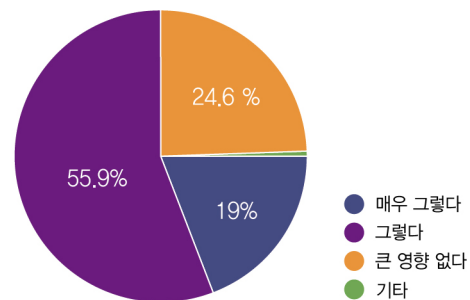
— 한-UAE CEPA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2.3%, 들어본 적은 있다는 응답이 52.3%로 나타나 홍보가 다소 부족한 상황

— 기업의 74.9%가 CEPA 발효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설문1. 한-UAE CEPA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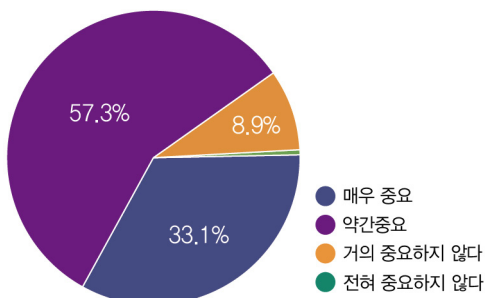
〈설문2. 수출 증가 기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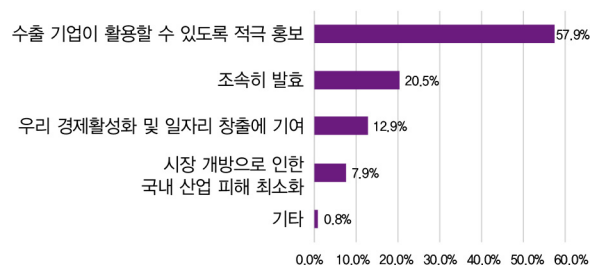
주: 설문1)의 ①, ② 응답자에 한하여 조사

○ 응답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한-UAE CEPA가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최우선 과제로 수출기업에 대한 홍보를 꼽음

〈설문3.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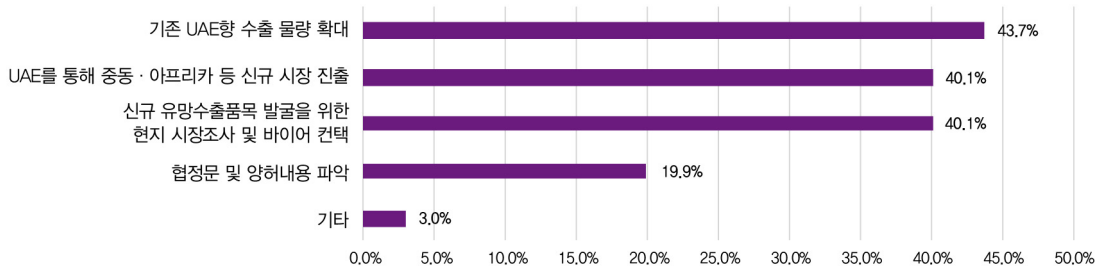


〈설문4. 최우선 과제〉



- 응답기업의 약 절반이 CEPA 활용을 통해 기존 UAE 향(向)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43.7%), 중동·아프리카 등 신규 시장 진출 및 신규 유망수출품목 발굴을 위한 활동도 늘리겠다는 응답이 각각 40.1%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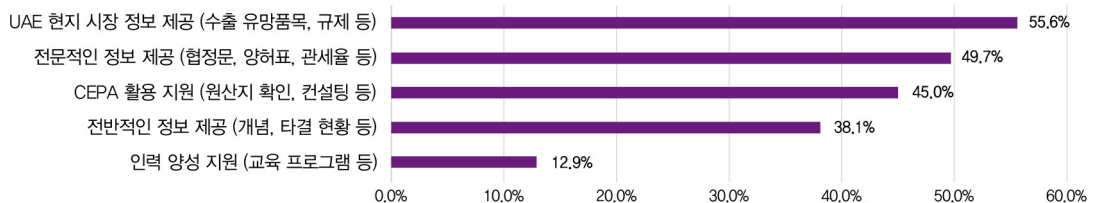
〈설문5. 한-UAE CEPA 활용을 위한 활동 (복수응답)〉



- 수출기업은 UAE 현지 시장 정보를 가장 궁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5.6%), CEPA 협정 관련 전문 정보 제공(49.7%) 및 활용 지원(45.0%)에 대한 수요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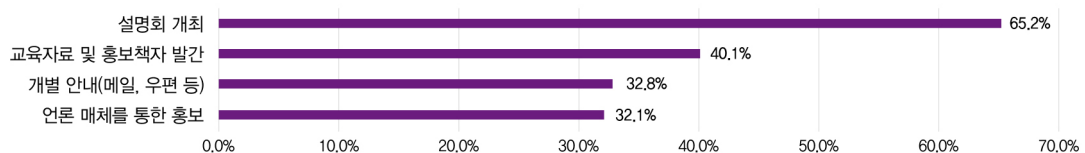
– UAE는 관세가 낮고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는 개방적인 무역국가이지만³¹⁾ 할랄제도 등 중동 지역에 특수한 규제 등이 있어 관련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설문6. 한-UAE CEPA 관련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복수응답)〉



- 한-UAE CEPA 인식을 높이는 방안으로 설명회 개최(65.2%), 교육자료 등 책자 발간(40.1%), 개별 홍보(32.8%) 등이 꼽힘

〈설문7. 한-UAE CEPA 인식 향상을 위한 방안 (복수응답)〉



31)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2023.11.25.), "United Arab Emirates Country Commercial Guid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글로벌 무역 허브인 UAE와의 CEPA 체결로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남아시아 등 신시장 진출 확대 기대
 - UAE는 세계 상위 5위의 재수출 국가이자 전체 무역액 중 재수출 비중이 27.5%에 달하는 물류 허브로서³²⁾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중동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의 시장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수교 44주년을 맞아 CEPA 체결이 UAE와의 협력 관계가 다방면에서 개선되고 공고해지는데 기여
 -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 협력 및 바이오 경제협력 부속서 채택에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 마련
 - － UAE는 그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최초로 에너지·자원 협력 부속서를 채택했으며 우리나라도 기체결 협정 중 최초로 바이오 경제 협력 부속서를 채택
 - 공급망 부속서를 통해 공급망 교란시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간의 조정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자동차(부품)·의료기기·화장품·K-콘텐츠 등의 수출 확대 기대 및 UAE산 원유 수입 증가 예상
 - 우리 기업들의 UAE 시장 진출 환경이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중국·EU·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유리하게 조성됨에 따라 유망 품목의 수출 촉진 기대
 - 정부 주도로 조성되고 있는 전기차 인프라, 지역 의료 허브로서 증가하는 의료기기 수요, 한류에 대한 높은 호감도 등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진출 증가가 기대됨
 - 한-GCC FTA에서 양허 제외된 원유에 대한 관세가 한-UAE CEPA에서는 10년에 걸쳐 철폐됨에 따라 UAE산 원유 수입이 타 중동 국가들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원유 수입관세 철폐로 에너지·원재료 단가가 낮아질 수 있으며 석유(화학)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및 물가 안정을 통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

32) Khoder Nashar(2023.7.5.), "Total direct and indirect economic impact of re-exports estimated at AED 48 billion: Thani Al Zeyoudi", WAM.

- 수입액 기준 상당수의 관세 철폐 방식이 단계적 인하 방식이어서 협정의 조속한 발효가 더욱 중요함
 - 대UAE 수출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상품관세가 10년간 철폐되므로 관세 철폐의 효과를 조기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발효되는 것이 중요
 - － 단계별 관세 인하는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UAE CEPA가 금년 중 발효된다면 연내 1차 인하 후 '25.1.1. 2년차 관세 인하가 됨
- 한-UAE CEPA 활용 촉진을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지도 및 교육 등 필요
 - 대UAE 수출기업 중 한-UAE CEPA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5.4%로 나오는 등 아직 우리 기업의 CEPA 인지도는 낮은 상황이며, 한-UAE CEPA에 대한 적극적 홍보(57.9%)가 요구됨
 - － 언론 홍보뿐만 아니라 설명회 개최, 교육자료·홍보책자 발간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협정 활용을 사전에 지원할 필요

[표]

1. 한-UAE CEPA 협상 경과 (p.1)
2. GCC 회원국 경제 현황 (p.2)
3. UAE의 CEPA 진행 현황 ('24.7월 기준) (p.3)
4. UAE의 무역 현황 (p.4)
5. 2023년 UAE의 주요 對세계 수입 품목 (p.4)
6. 한국의 對UAE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p.7)
7. UAE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 추이 (p.8)
8. 한-UAE CEPA 상품 양허 비교 (UAE측) (p.10)
9. UAE측 금지·특별관심 품목 (p.11)
10. 자동차(부품) 및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대상 UAE 양허 현황 (p.11)
11. 화장품 대상 UAE 양허 현황 (p.13)
12. 의료기기 대상 UAE 양허 현황 (p.13)
13. 전기전자제품 대상 UAE 양허 현황 (p.14)
14. 한-UAE CEPA 상품 양허 (한국측) (p.14)
15. 광물자원 대상 한국 양허 현황 (p.16)
16.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대상 한국 양허 현황 (p.16)
17. '원산지 상품' 기준 및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기준 (p.17)
18. 주요 서비스 대상 UAE 양허 현황 (p.18)

[그림]

1. 한-UAE CEPA 추진 경과 및 잔여 일정 (p.1)
2. UAE 경제성장률과 국제유가 추이 (p.3)
3. UAE 부문별 실질 GDP 성장률 (p.3)
4. 한-UAE 교역 현황 (p.5)
5. 최근 10년간 對UAE 주력 수출입품목 규모 변화 (p.8)
6. 국가별 원유 수입 현황 및 추이('23) (p.15)
7. 석유화학산업의 가치사슬 (p.15)
8.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 통계 (p.15)

[참고]

1.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p.6)
2. 한국의 중동 지역 무역협정 현황('24.7월 기준) (p.9)
3. UAE의 자동차 시장 현황 및 특징 (p.12)
4. '제9장. 디지털 무역' 주요 내용 (p.19)

[설문]

1. 한-UAE CEPA 인식 (p.20)
2. 수출 증가 기대 정도 (p.20)
3.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p.20)
4. 최우선 과제 (p.20)
5. 한-UAE CEPA 활용을 위한 활동 (복수응답) (p.21)
6. 한-UAE CEPA 관련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복수응답) (p.21)
7. 한-UAE CEPA 인식 향상을 위한 방안 (복수응답) (p.21)

참고자료

[국내 문헌·기사]

김기훈(2022.11.29.), “대러제재에 러시아産 나프타 수입 뚝…UAE·인도로 공급 다변화”,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8103500003>

김동규(2024.5.29.), “[일문일답] 통상본부장, 한·UAE CEPA로 자동차·車부품 최대 수혜 예상”,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9143500003>

김태환, 정준환, 우민지(2024.1.), “2024년 국제 원유 시황과 유가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신원(2024.7.7.), “韓·UAE CEPA 속도…국내산업 영향 분석 돌입”,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BNDDA5QX>

이상훈(2023.2.24.), “급성장하는 UAE 의료기기 시장, 지금이 진출 적기”, 약업신문.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78924>

차대운 (2024.6.2.), “UAE에 원전 수출했더니 연료 우라늄 수출도 ‘쑥’... 작년 4천억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912130000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4.4.2.),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2024.1.8.), “2023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문헌·기사]

ARTHUR D LITTLE(2023.10.), “GLOBAL ELECTRIC MOBILITY READINESS INDEX – GEMRIX 2023”,

ARTHUR D LITTLE.

Central Bank of the UAE(2024.6.13.), “2023 Annual Report”, Central Bank of the UAE.

Deepthi Nair(2023.4.12.), “Dubai received 674,000 medical tourists who spent \$270m in 2022”,

The National.

<https://www.thenationalnews.com/business/travel-and-tourism/2023/04/12/dubai-received-674000-medical-tourists-who-spent-270m-in-2022/>

Hazem Hussein, Khoder Nashar(2024.2.18.), "Forward-looking vision of wise leadership reflected in UAE's non-oil foreign trade: Al Zeyoudi", WAM.

<https://wam.ae/a/b1q5zzv>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2023.11.25.), "United Arab Emirates Country Commercial Guid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Khoder Nashar(2023.7.5.), "Total direct and indirect economic impact of re-exports estimated at AED 48 billion: Thani Al Zeyoudi", WAM.

<https://wam.ae/en/details/1395303174739>

MEED(2023.7.), "ANALYSIS: UAE Projects H2 2023", MEED.

OPEC(2024.5.14.), "Monthly Oil Market Report", OPEC.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Customs clearance",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finance-and-investment/clearing-the-customs-and-paying-customs-duty>.(검색일: 2024.7.15.)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2023.2.23.), "First set of 'Projects of the 50'",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https://u.ae/en/about-the-uae/uae-in-the-future/projects-of-the-50/first-set-of-projects-of-the-50> (검색일:2024.7.5.)

UAE Ministry Of Finance, "UAE Economy Overview", UAE Ministry of Finance.

<https://mof.gov.ae/fdmo-uae-economy-overview/>(검색일: 2024.7.5.)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2024.4.15.), "Current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current US\$) – Qatar, United Arab Emirates, Bahrain, Oman, Kuwait, Saudi Arabia", WHO.

[정부 관련 문서]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4.), “(참고자료)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2024.5.29.), “(참고자료)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신 중동 붐’ 성큼 다가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참고 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fta.go.kr/>

아랍에미리트 통계청, UAE Stat. <https://uaestat.fcsc.gov.ae/en>

통계청,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한국석유공사, 펌프로넷. <https://www.petronet.co.kr/>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Data Portal. <https://data.imf.org/>

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map. <https://www.trademap.org/>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tats. <https://stats.wto.org/>

〈2024년 KITA 통상리포트 발간 목록〉

No.	제목	작성자	발간일자
9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강금윤/오지인	24.09.03
8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이정아/강금윤/오지인	24.08.22
7	인공지능(AI) 규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및 시사점	정해영	24.07.26
6	미-중 전략경쟁, 레거시 반도체로 전이되나? - 주요국의 레거시 반도체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이유진	24.07.12
5	美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한아름	24.06.10
4	한국의 FTA 체결현황 점검	통상연구실	24.05.24
3	미국의 경제안보 · 핵심기술 통제 전략 강화 및 시사점	정해영/이정아/한주희/고성은	24.02.27
2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강금윤	24.02.20
1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 -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한아름	24.02.08



TRADE REPORT

202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층
2024. 09. 03